

2. 우리 나라의 大火災略史

歷史上 記錄된 우리나라 大火는 거의가 宮殿에서 發生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火氣의 使用 規模가 컸고 또 大火로 發展할 수 있는 燒材가 보다 많이 宮殿에 集中되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李朝時代의 首府 漢城(오늘의 서울)에서 發生한 火災의 記錄된 事實은 大略 다음과 같다. 이것을 一瞥하여 알 수 있듯이 宣祖 25年(1592年) 5月の 倭亂에서 歷史上 가장 大規模의 火災가 戰亂으로 인하여 發生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6.25 動亂에서 首都를 비롯한 數多한 大都市가 戰亂의 火災로 荒涼한 廢墟로 되었던 過去를 想起해 봄으로써 그 當時의 狀況을 능히 想像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人爲的인 放火에 의한 이와 같은 火災를 除外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이웃 日本과 같이 잇달아 일어나는 大火災의 記錄은 없다. 이것은 아마도 建築面에서의 差異點과 더불어 氣候關係의 差異點에도 原因이 있겠으나 특히 그들에게 자주 있는 地震이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없었다는 事實에도 많은 原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事實은 그들과 우리 사이에 여러가지 면으로 對照를 이루고 있다.

1~1. 李朝時代의 火災

定宗	2年	2月2日(AD 1400)	文廟의 火災
中宗	5年	春	(" 1510) 興仁寺 舍利의 火災
中宗	9年	12月	(" 1514) 尊敬閣의 火災
中宗	38年		(" 1543) 東宮火災
明宗	8年	9月	(" 1553) 景福宮大延燒 恩政殿以南歷代典憲을 燒盡
宣祖	25年	5月	(" 1592) 景福宮火災, 倭寇犯京, 亂民先焚形曹, 常諫院 및 臨海君宮, 洪汝諒家, 景福宮 등을 燃燒
肅宗	11年	正月	(" 1685) 鍾閣 火災
肅宗	13年	9月	(" 1687) 萬壽殿 火災
景宗	2年	4月	(" 1722) 市塵 火災
英祖	9年	10月	(" 1733) 市塵 火災
英祖	13年	9月	(" 1737) 市塵 火災
英祖	20年	9月	(" 1744) 市塵 火災
英祖	20年	10月	(" 1744) 承政院火災로 自宣祖辛丑以後百餘年時政記 火盡
英祖	37年	7月	(" 1761) 市塵 火災
正祖	11年	4月	(" 1787) 西部東幕里 民家 五百餘戶 火災
正祖	14年	正月	(" 1790) 通明殿 火災
純祖	3年	12月	(" 1803) 仁政殿 火災
純祖	12年	12月	(" 1813) 壽政殿衍閣 火災
純祖	19年	3月	(" 1819) 南水宮火藥庫 火災
純祖	24年	8月	(" 1829) 景福宮 火災

純 祖 29年 10月 (AD 1829) 慶熙宮 火災
 純 祖 30年 8月 (" 1830) 歡慶殿 火災
 純 祖 33年 10月 (" 1833) 昌德宮 大造殿 熙政殿堂 火災
 憲 宗 5年 12月 (" 1839) 景慕宮望廟閣 火災
 哲 宗 8年 10月 (" 1857) 宣仁門 火災
 哲 宗 14年 8月 (" 1863) 市廳 火災
 高 宗 元年 4月 (" 1864) 鍾閣火災 및 市廳 火災
 高 宗 2年 12月 (" 1866) 彰義宮藏譜閣 火災
 高 宗 10年 12月 (" 1873) 交泰殿 火災
 高 宗 14年 11月 (" 1877) 康寧殿交泰殿 火災
 高 宗 18年 11月 (" 1881) 昌德宮 咸寧殿 火災
 高 宗 25年 3月 (" 1888) 景福宮 承政院秀後 火災
 高 宗 26年 9月 (" 1889) 慶熙宮 崇政殿 火災
 光 武 閏 8月 (" 1900) 慶雲宮璿源殿 火災
 光 武 8年 2月 (" 1904) 慶雲宮中和殿 咸寧殿 郎阡堂御堂景者殿 火災

1~2. 8.15 前의 大火

가. 乙支路(黃金町) 法堂 大火災

零下 7°C까지 氣溫이 내린 첫 추위에 거센 西北風이 휘몰아치던 1938年 11月 12日 下午 3時 10分頃, 乙支路(當時의 黃金町 4丁目 283番地) 高野山大師 教會 黃金町支部의 新藤知照(75)의 法堂에서 發火, 火焰은 風勢를 얻어 건잡을 새 없이 擴大하여 本堂을 全燒시키고 옆집 2層과 附近 草家屋에까지 延燒해서 3戶를 瞬息間에 태워버렸다.

前記 佛敎法堂에는 은신통지조라는 장님 老婆와 田中(84)이라는 老婆 단 둘이 아침 저녁으로 佛供을 드리고 있었다고 하며 이번 불은 法堂에서 發火한 것만은 事實이나, 어떠한 原因으로 어떻게 發火됐는지 하나의 수수께끼로 되어버렸다. 이튿날 田中이라는 老婆는 行方不明이 되고 保險 其他 關係도 알 수 없었다.

이 火災로 인한 損失額은 當時 貨幣로 1,000萬圓에 달했다는 것이다.

나. 永登浦 大火災

1939年 10月 21日 午後 10時 20分頃에 永登浦 堂山洞 龍山工作會社 製紙工場에서 突然 發火하여 불길은 건잡을 새 없이 퍼져 그칠줄을 모르고 타 올라 一帶가 火魔로 칩쓸려 修羅場이 됐다. 火因은 屋上으로부터의 漏電인 듯하였으며, 기름 벨트 때문에 消防隊로서도 그 當時의 裝備로서는 束手無策이었다. 發火時는 더구나 夜間就業中이었으나 多幸히 人命被害는 없었으며 보일러에서 나오는 爆發소리로 永登浦 一帶가 振動되었고, 1時間 後인 11時頃에야 비로소 鎮火되었는데 損害額은 當時의 貨幣로 20餘萬圓에 달했다는 것이다.

다. 兼二浦 製鐵所 大火災

1940年 1月 23日 午前 7時 10分頃 兼二浦 製鐵所 가솔린 탱크에서 突然 大音響과 함께 爆發되어 未明의 三萬市民을 놀라게 하였다. 탱크 爆發로 職工 數名이 負傷을 입었으며 損害額은 當時 貨幣로 數 10萬圓에 달했다.

火因은 危險源의 管理疎忽에 基因한 것이었으며 이 點에 대하여는 깊이 反省 措置가 있어야 한다고 當時 輿論이 沸騰한 바 있었다.

라. 蔚山 凡西山의 山林火災

蔚山郡에서도 屈指의 模範山林으로 되어 있는 凡西山에서, 1940年 2月 7日 午前 1時부터 發火, 連 三晝夜間 凡西面 中里, 尺里, 西沙, 斗東面 萬和 등 各 村落에 亘하여 300餘町步를 燒盡케 하였으며, 尺果山 一帶는 郡內에서도 특히 薪木 生産地로서 主要地帶였던 것이다.

損害額은 當時 貨幣로 50餘萬圓에 달했다는 바 火因은 未詳이다.

蔚山郡 山林禊가 總動員되었고 隣近 4個 部落民이 總出動해서 비로소 9日 새벽에야 겨우 鎮火 되었다.

마. 咸興 榮町 大火災

1940年 2月 25日 午前 11時 20分頃 咸興 榮町(當時의 行政區劃) 덕전 鐵工所에서 갑자기 불이 일어나 隣接한 咸興鐵工所와 咸興産業組合의 三層洋屋建物 및 同組合 倉庫 등까지 延燒 燒盡케 했다.

이 火災로 말미암아 當時의 貨幣로 50餘萬圓의 損失을 났으며 火因은 煖爐 取扱 不注意로 인한 過熱에서 周圍의 可燃物에 引火된 것이었다.

鎮火次 消防隊가 出動하였으나 凍結로 인한 消防機器具의 機能을 發揮치 못한 대서 效果的인 消火作業의 實을 거두지 못했다는 事實이 들어났다는 것은 注目할만한 일이었다.

바. 大東炭鑛 火災

1940年 3月 17日 午前 4時 10分頃 陽德 大東炭鑛의 坑長 宿所에서 發火, 때마침 猛烈한 바람이 加勢, 건잡을 사이도 없어 瞬息間에 同舍宅 40餘棟을 全燒하고 鎮火되었는데 原因은 失火인 듯하며, 損害額은 當時의 貨幣로 30萬圓에 달했다.

地方이기 때문에 消防隊의 機能이 微弱했을 뿐 아니라 連絡通報하는 時間에 이미 盛火期를 넘겨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業態 自體로서의 消防施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問題가 되었다.

1~3. 8.15 後의 大火

가. 釜山國際市場 大火

1953年 1月 30日 下午 7時 30分頃 戰亂으로 人口가 膨脹한 臨時首都 釜山の 中心地帶인 國際市場의 中心部에서 突然 發火하여 1平方哩地域(新昌洞, 大廳洞, 富平洞) 一帶를 태워버렸다. 揮發油筒이 爆發되는 곳도 있어 釜山市內는 火災이 冲天할 뿐더러 數많은 罹災民은 보따리를 끌어 내며 家族을 서로 찾아 痛哭聲이 터져 避難當時를 聯想케 하는 큰 混雜을 이루었다.

發火 即時로 市內消防隊와 警察은 勿論 美軍탱크까지 出動, 鎮火作業에 總力を 傾注하였으나

發火後로부터 鎮火까지 無慮 8時間동안 商街一帶 및 그 附近은 그야말로 生地獄의 修羅場으로 化하였다.

이 火災는 前記한 바와 같이 1平方哩에 이르는 國際市場 中心部の 商街 一帶를 휩쓸었으며, 그 附近까지 延燒함으로써 1,000餘棟의 店舖 및 家屋이 消燼되었고, 死亡者, 行方不明者가 都合 20名에 10餘名이 負傷을 입었으며, 18,000餘名에 달한 罹災民을 내게 하였다. 總被害額은 當時의 貨幣로 2億을 推算했다.

한편 이 火災의 原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區區한 說이 있었으나 結局은 「洋층이 비져낸 悲劇」으로 判明, 落着되었다. 卽 新昌洞 一街에 있는 料理店「춘향원」에서 4名의 顧客과 2名의 接待婦가 飲酒中 顧客中の 1名이 接待婦와 社交춤을 추다가 알게 걸려있던 石油燈잔을 팔로 쳐서 떨어 뜨리게 한 것이 引火되었던 것인데, 그 瞬間에 顧客들이나 接待婦들 모두가 滿醉한 狀態에서 어찌할 道理가 없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나. 釜山驛前 大火災

1953年 1月 30日 國際市場을 全燒하여 數많은 罹災民을 냈을 뿐 아니라 數億에 달하는 國家 財産을 瞬息間에 잿더미로 만든 몸서리치는 記憶이 생생한 채 火魔는 港都 釜山을 또 다시 猛襲하여 釜山の 繁華街를 불바다로 휩쓸고 말았다.

1953年 11月 27日 下午 8時 25分頃 영주동 16班 17號 許某氏 집에서 發生한 火魔는 때마침 불어오는 時速 30哩의 暴風으로 火災은 瞬息間에 擴大되어, 14時間에 걸친 大火魔는 釜山驛前을 中心으로 한 繁華地域의 主要建物 및 民家 등을 火燼케 하였는데 火災는 다음날 28日 上午 12時 20分에야 겨우 鎮火되었다.

우리 나라 火災史上 初有의 이 놀랄만한 大火災의 火因은 前記 許氏집 다다미방에 裝置한 暖爐 불이 過熱되어 引火된 것이라고 한다.

이 火災로 말미암아 勿驚 損失家屋이 1,250戶에 5,200世帶에다 28,200名의 罹災民을 냈고 被害額은 當時의 貨幣로 2,000億을 推算, 이는 앞서의 國際市場燒失의 100倍에 달하는 巨大한 損失額인 것이다.

※ 主要被害建物

釜山驛, 釜山放送局, 美後方基地司令部, 鐵道호텔, 朝鮮運輸, 外資管理廳倉庫, 大韓婦人會館, 國民會 釜山支部, 第一호텔, 中央호텔, 朝鮮호텔, 豐國産業公司, 郵遞局, 國際호텔……

다. 釜山驛構內에서의 列車火災事件

1955年 3月 2日 午後 6時 13分頃 釜山驛構內 6번 포움에 駐車中이던 滿員의 乘客을 실은 서울行 6列車內에서 火災가 發生하였다. 急激한 火災로 서로 먼저 내리려던 群衆 乘客中 男子 9名, 女人 27名, 男兒 1名 등 42名이 燒死하고 14名이 火傷을 입은 大慘事가 發生하였다.

이 火災는 交通部 康生會 釜山事務所 販賣員 孫某氏(22)가 앞으로부터 넷째번 客車內의 座席 밑에서 흘러내리는 고무풀로 認定되는 引火質物을 試驗해 보기 위하여 불을 켜붙인 것이 原因이 되어 急激한 火災로 擴大한 것이라 한다.

한편 이 火災로 客車 1輛이 半燒되고 15分後 鎮火되었다.

라. 釜山 佐川洞 火災事件

1954年 4月 3日 上午 9時 40分頃 釜山市 佐川洞에서 發生한 火災는 570戶의 家屋을 燃燒했으며 13名의 燒死者를 내고 11時 30分頃에 鎮火되었다. 이 火災의 原因은 揮發油 送油管에서 새어나온 揮發油에 성냥불이 引火된 것이라고 하며 이 火災로 인하여 男子 8名, 女子 2名, 어린이 3名이 燒死 또는 行方不明이 되었다.

마. 釜山 國際고무工場의 火災事件

1960年 3月 2日 上午 8時에 突然 發生한 釜山市 凡一洞에 있는 國際고무工場의 火災는 發火後 約 1時間만에 鎮火되었으나, 60坪의 建物を 燒盡시켜 損害額은 當時의 貨幣로 1億圓을 推算했고 특히 凄慘했던 것은 62名의 人命을 火葬시키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들 중 男子 2名을 除外한 大半이 女子從業員이었으며 會社側에서는 이들 屍體를 會社에서 約 20里나 떨어진 堂甘洞 所在의 仙岩寺境內에 安置시켜 物議를 일으키기도 했다.

초라한 棺에 넣은 屍體는 모두가 타버려서 그들의 容貌는 전혀 分別할 수가 없었으며 그 뿐만 아니라 約 3分の 2가량 되는 屍體는 목이 떨어져 있어 더욱 分간 할 도리가 莫然하였다.

이 事件이 發生한 後 同工場 從業員으로서 歸家하지 않는 家族은 필경 죽었을 것이라는 判斷으로 이 結간을 찾아 痛哭을 하고 있는 實情이었는데 그 누구도 自己家族의 죽은 얼굴을 찾아내는 사람은 없었다 한다.

아-주마야, 엄마야, 자야, 옥아……모두 미친사람 모양으로 몸부림치는 遺家族들의 모습은 虛無한 人生의 悲痛이었으며 그 중에는 몸부림 치다못해 氣絶까지 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一大慘事 事件으로까지 悲慘한 結果를 가져오게 한 이 火災의 火因에 대하여는 그 後 多角度로 究明한 바 있었으나 迷宮에 빠지고 말았다.

바. 淸涼里市場 火災

1961年 6月 22日 새벽 2時 20分頃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淸涼里市場에서 불이 일어나 때마침 불어오는 西南風을 안고 同市場의 板子店舖와 隣近 民家 8棟 206戶(1,610坪)를 全燒시킨 後 2時間만인 4時頃 鎮火되었다.

火災가 發生하자 서울시內 全消防隊가 總出動하였고 170石의 防火水 貯藏탱크가 있었으나 停電 때문에 使用치를 못하였다.

火災發生後 現場을 中心으로 火因을 糾明한 서울警察局은 淸涼里市場의 守衛長 金某氏를 業務上 重失火嫌疑로 立件하고 調査한 바 담배불에 의한 失火임을 밝혔다.

金은 이날 밤 市場警備를 맡았던 宿直員인데 警備中 附近 酒店에서 배갈 1흡을 마시고 난 後 담배를 피워 물고 거닐다가 새벽 2時 15分頃 前記 市場內 34號 및 35號 店舖앞에 다 끄지도 않은 채 담배불을 버린 것이 休紙에 引火하여 發火케 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被害程度는 206個 店舖가 全燒하고 金額으로 約 7천 246萬환으로 推算했다.